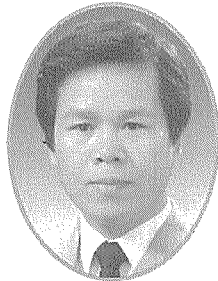


'95년 국제유가 전망



이 문 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1. 머리말

국제 석유시장에서 유가 약세 현상이 좀처럼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가 않다. 지난 '90년 중동 걸프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성수기의 약세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선진국 경기 본격 회복 등 세계 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석유 수요 증가가 작년보다 하루 약 1백만 배럴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량 동결 연장의 영향 등으로 년평균으로 배럴당 1~2달러정도 오를 전망이다. OPEC내에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며, 회원국 대부분이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이라크의 석유시장 재참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OPEC의 이번 결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결론이지만, OPEC가 기대하는 정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여

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OPEC가 국제석유 시장에서 가격통제 능력을 상실한 현실점에서 향후 2~3년 동안 유가는 약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2. 1994년 석유시장의 변화

1994년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수기 상승세와 성수기 유가 약세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3월말 OPEC 총회에서 감산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로 2/4분기중에 큰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리하던 예상은 미국 석유선물시장에 기금 등 대규모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어 예상을 반전시키는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연이어서 발생한 예멘 내전과 한반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 국면의 전개로 유가는 1/4분기 보다 배럴당 평균 2~3달러(Dubai유 13~16달러)의 강세를 유지하였다. 3/4분기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나이지리아

의 석유노조 파업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가 군사정부와 석유가스 노동조합 간에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로 약 2개월간 전면파업의 형국으로 대립하면서 국제유가는 2/4분기에 이어 3/4분기 중에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9월 이후 국제유가는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Dubai 평균 15\$/b의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10월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접경지역으로의 병력이동으로 야기된 중동 위기사태는 미, 영 등 연합국 측의 신속한 대응과 러시아의 이라크 설득으로 조기에 수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가는 사태 발생 초기 반등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사태 이전 수준보다도 더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11월 21일에 개최된 OPEC 총회 이후에도 유가는 별다른 특징적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올 겨울철 날씨가 년말과 내년도 1/4분기 유가 변화에 최대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북미지역과 서유럽에서 예상밖의 맹추위가 닥쳐올 경우, OPEC의 공급 제한으로 재고 소진을 유도하여 겨울철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94년 국제석유 시장은 북미지역에서의 년초 연료유 부족과 수송용 휘발유 공급의 부분적인 부족 우려를 제외하고는 석유수급 측면에서 유가의 변동을 초래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의 석유선물에 대한 투기수요, 주요 산유국의 정치적 사태 변화와 국제적 긴장 사태, 기후 및 일부 유전이나 정유소 등의 사건 사고에 의하여 가격 등락이 초래되는 사태가 특히 비수기에 연이어서 발생되었다. 따라서 수급적 요인과는 다소 무관하게 원유 가격의 등락이 이어짐으로써 비수기 강세 현상을 가져왔던 한해였다.

3. 제97차 OPEC 총회의 평가

제97차 OPEC 총회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이를

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OPEC의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합의 사항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452만b/d인 현재의 총 산유량을 내년말까지 1년간 더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는 수보루토 전임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이후 그동안 공석으로 남겨두었던 임기 3년의 사무총장직에 나이지리아의 석유장관과 OPEC 의장을 역임하였던 W. LUKMAN씨를 지명하였다. 셋째, 차기 총회는 내년 6월 19일 비엔나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총회의 개최에 앞서 산유량 상한을 동결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어 1년간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사우디의 정책 전환과 국제시장에서 가격 지지 능력을 상실한 OPEC의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예상보다 수월하게 산유량 동결의 연장과 3파전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사무총장 선출 등 의제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현재 산유국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제 석유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유가의 약세 상황을 어떻게 하든 타개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도인 것이다.

현재 OPEC 회원국들의 국별 산유량 쿼터는 1993년 9월 총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난해 3월말 총회에서 이를 년말까지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월 총회에서는 과잉 공급물량의 해소를 위하여 쿼터량 삭감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라도 역시 사우디의 강력한 삭감 반대로 동결안이 채택된 것이다. 당시 사우디의 전략은 가격 보다는 시장 확대 전략의 집착이 이유였으나, 이번에는 사우디가 장기적인 시장확대 전략을 포기하고 단기 가격지지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며 OPEC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 변화에서 이번 총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OPEC 산유국들은 석유 판매로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어 현재의 저유가 하에서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재정 수입은 늘어나는데 반하여, 이들 국가의 석유 판매 수입은 외형으로 198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산유국들은 석유산업의 유전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 산업개발과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던 사우디도 올해 처음으로 왕실에 대한 재정지출을 19%나 삭감하였다. 또 군사장비, 전력, 통신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사우디 정부로 하여금 석유정책을 기존의 시장 확대 전략으로 부터 단기 전략인 가격지지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OPEC 산유국들이 석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외화의 규모는 지난 1980년 2,800억달러를 정점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작년에는 불과 1,260억달러로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우디의 전략은 내년의 선진국 경기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예상되는 석유수요 증가에 대하여 공급을 낮은 수준에서 묶어둠으로써 수급을 타이트하게 유도하여 가격 상승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만일 이같은 사우디의 전략이 예상대로 성공한다면 국제유가는 오르겠지만, 만일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들 국가의 재정수요 압박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OPEC가 예상밖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또 다른 일부의 해석은 '90년 걸프전 종전 이후 사우디가 누리고 있는 고유의 쿼터 지분을 당분간 향유하기 위하여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입으로 야

기된 1990년 걸프전 발발 직후부터 원유공급 부족분의 대부분을 증산 공급해왔다. 사우디의 현 산유량 상한 일일 800만배럴은 그 이전의 쿼터 물량 538.1만 배럴과 비교해 정확하게 261.9만 배럴의 특수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추가 증산의 여력이 없었던 이란은 쿼터 증설의 호기를 사우디와 UAE에 빼앗긴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1993년 9월 총회에서 이러한 사우디의 일방적 증산을 비난하고 재정문제를 이유로 자국 쿼터의 대폭 증설을 요구한 끝에 하루 360만배럴의 쿼터를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일 총회에서 쿼터 재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시장이 약세인 현시점에서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원유 가격의 예상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특수 상황하에서 추가 확보된 쿼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OPEC 총회에서의 산유량 동결 12개월 연장이 내년도 국제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은 OPEC의 예상보다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산유량 연장을 합의하였지만 2/4분기 비수기의 수요 감소 예상, 각국 기상청의 올 겨울철 예년을 웃도는 따뜻한 기후 전망, 내년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총회에서 재거론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유량 상한 확대 문제와 시장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라크의 하반기 시장 참여의 가능성은 OPEC가 노리고 있는 4/4분기 공급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OPEC 석유판매 수입

(단위 : 억 달러)

	1975	1980	1985	1990	1993
총 판매 수입	1,078	2,845	1,272	1,474	1,260
* OPEC 유가(\$/b)	10.46	29.38	26.61	21.23	15.64

주 : 1980년 이전은 OPEC 공식가격, 이후는 OPEC 평균가격임.

4.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가능성

지난 10월 초에 이라크측 군병력의 쿠웨이트 국경 지역 이동으로 조성되었던 중동의 새로운 긴장 국면은 그동안의 금수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무력 시위를 통하여 유엔에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려 했던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무모한 시도의 좌절이었다. 사태가 발생하자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요구하려면 먼저 '91년 4월 유엔이 의결한 항구적 정전결의안(안보리 의결 687호)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안보리 의결 687호에서 유엔은 이라크에 대하여 평화를 위한 3개항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개의 요구 조건이란, 첫째 1963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된 국경선을 인정할 것, 둘째 생물, 화학무기나 사정거리 1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유엔의 사찰을 허용하고 보유 무기는 모두 파괴할 것, 셋째 전쟁 배상기금을 창설하고 원유수출 대금을 동 기금에 산입할 것 등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바탕으로 매 60일 마다 이들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대 이라크 경제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라크측은 그동안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활동에 비교적 협조적이었으며,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95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연말 이전에 이라크의 금수조치가 완화 또는 해제되리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4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극도로 피폐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 무기사찰단이 새로이 설치한 장기 무기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가동을 계기로 유엔에 대해 금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그같은 군사적 모험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당겨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더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제적 분위기는 11월10일 이라크가 긴급 소집된 혁명평의회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주권과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유엔이 설정한 국경선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반전되는 분위기이다. 11월15일 유엔 안보리는 예상대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상임이사국들은 차기회의 이후 점진적인 완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 비상임 이사국

OPEC의 국별 쿼타 변화

(단위 : 천 B/D)

국	별	현	행 (A)	1990. 12. (B)	A - B
사우디아라비아			8,000	5,381	2,619
이라크			3,600	3,140	460
쿠웨이트			400	3,140	-2,740
UAE			2,000	1,500	500
카타르			2,161	1,500	660
나이지리아			378	371	7
리비아			1,865	1,611	254
알제리			1,390	1,231	159
가봉			750	827	-77
베네수엘라			287	197	90
인도네시아			2,359	1,945	414
에콰도르*			1,330	1,374	-44
에콰도르*			-	273	-273
합계			24,520	22,491	

*에콰도르는 1992년 OPEC에서 탈퇴

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국경선 및 주권을 공식으로 인정할 현시점에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연장해야 할 명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라크측과 석유탐사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던 러시아와 프랑스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명분과 함께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1995년중 이라크의 시장 참여 재개를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최근 이라크 석유장관 *Safa Hadi Jawad*는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즉시 하루 100만~15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90년 걸프사태 이전의 이라크와 같은 수준(314만b/d)으로 생산능력을 회복하는데는 1년 내지 1년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OPEC총회 직후 이라크대표는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이라크는 OPEC체제에 남아 있으면서 일정기간 OPEC 쿼터시스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생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내년 후반으로 예상되는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 일부 완화 또는 해제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석유수요 확대 국면에서 이라크의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OPEC의 발리회의 결정(95년 말까지 생산량 상한 동결)으로 연말까지 합의사항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하더라도 이라크의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면 내년 하반기 유가 상승의 가능

성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게 될 전망이다.

5. 국제 유가 전망

1995년도 국제 석유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은 유보적인 가운데 세계 석유수요가 1994년보다 하루 약 80만~100만 배럴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수요 증가는 새로운 WTO체제의 출범, 지역 경제공동체(EU, APEC, NAFTA 등) 활동의 활성화, 중동 평화협정 등 정치적 안정 확산의 영향이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의 예상되는 경기 호전과 아시아지역을 주축으로 개도국 경제가 여전히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가격은 OPEC 평균가격 기준 15~18\$/B의 안정적인 유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단의 근거는 OPEC가 연말까지 산유량 동결(2,452만b/d)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금수해제의 가능성, 북해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 호조, 러시아의 안정적인 원유수출 가능성 등 시장의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급 이외의 요인 즉 산유국의 정치적 갈등이나 지구 환경문제로 인한 산유국이나 주요 소비국에서의 정책 변화, 이라크의 정치적 돌출 행동, 계절적 이상 기후 및 유전에서 사고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격의 등락 현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새로운 자유무역시대를 맞이할 1995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올해에 이어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올해에 이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과 EU제국도 올해를 분기점으로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5년 세계경제는 3.6%로 전년의 3.1% 성장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본격적 경기회복 국면 진입과 독일 등 선진권

1995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1995	1994	1993
세	계	3.6	3.1	2.3
1) 선	진	2.7	2.7	1.3
미	국	2.5	3.7	3.1
영	국	3.0	3.3	2.0
독	일	2.8	2.3	-1.1
프	랑	3.0	1.9	-1.0
일	본	2.5	0.9	0.1
2) 개	도	5.6	5.6	6.1
3) FSU	동구권	-1.0	-8.3	-9.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4. 10

국가들의 경기 호전이 뚜렷해지고 있고,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서 IMF는 선진국의 올해 성장율은 평균 2.7%, 개도국은 5.6%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구소련과 동구권의 성장율은 작년의 -8.3% 보다는 크게 호전되는 -1.0%로 전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계 경기 호전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 수요는 1994년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EA는 최근호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1995년도의 세계석유 수요를 6,930만b/d로 작년의 평균 6,810만b/d보다 약 120만b/d(1.7%)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OECD가 4,040만b/d로 1.2% 증가, 개도국이 2.5% 증가한 2,890만b/d이다. 이같은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대 OPEC 원유수요를 추정해 보면 연평균 2,530만b/d로 전망되고 있다. OPEC의 연말까지 산유량 동결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수준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하루 2,500만배럴의 공급은 가능하리라는 가정하에 '95년도 세계 원유수급밸런스(표 참조)에 따르면 성수기인 1/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00만b/d와 140만b/d의 재고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2/4분기와 3/4분기에는 60만~90만b/d의 여유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급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내년도 원유가격은 OPEC 평균유가로 올해 보다 다소 오른 수준인 배럴당 15~18달러로 전망된다. 연평균 중심치는 16.0달러, 3/4분기 이후에는 16.5~17.0달러

의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의 검토와 같이 내년도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금수 완화는 이미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석유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이라크의 즉각적인 수출 여력이 큰 관심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만일 하반기에 이라크에 대해 석유 수출이 허용된다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50만~60만b/d의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예상되고 있다. OPEC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금수조치가 해제된다면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산유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라크는 당분간 OPEC 체제하에서의 자유생산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산유량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내년도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변수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올해 나이지리아 사태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산유국의 정치적 사건의 돌출, 환경문제의 악화나 유전이나 파이프라인등에서의 돌발적인 사건 사고, 구소련 지역에서의 공급예로 요인의 발생, 지역적 계절적인 이상 기후 또는 자연재해 등이다. 국제 선물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 NYMEX IPE, SIMEX를 하나로 묶는 전산거래 시스템의 도입 등도 시장거래의 등락폭을 확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작년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투기성 자금의 움직임도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우디의 정책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

세계 원유 수급 밸런스

		(백만b/d)					
		'94년도	'95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수	요	68.1	69.3	70.2	67.6	68.2	71.1
	(OECD)	(39.9)	(40.4)	(41.0)	(39.3)	(39.9)	(41.3)
2. 공	급						
	-非 OPEC	41.1	41.6	41.8	41.1	41.3	42.3
	-OPEC	24.9	25.0	25.0	25.0	25.0	25.0
	(NGL)	(2.4)	(2.5)	(2.4)	(2.4)	(2.5)	(2.5)
3. 대 OPEC 수요 ²⁾		24.6	25.3	26.0	24.1	24.4	26.4
4. 재고 변동		+0.3	-0.3	-1.0	+0.9	+0.6	-1.4

주) 1. OPEC 산유량 동결불구 공급량을 일일 2500만b/d로 가정.

2. 세계 수요에서 비OPEC 공급량과 NGL을 제외한 추정된 OPEC 원유 수요량